



KEB 하나은행 K LEAGUE 1 2018

THE UNITED

MONTHLY MAGAZINE
2018.12.01 / 제11호



2018 SEASON

스플릿라운드 일정
2018시즌 선수명단

KEY PLAYER INTERVIEW

'축구 천재' 이정빈, "강원원정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MATCH PREVIEW

"생존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
냉정히 경기에 임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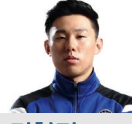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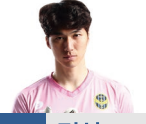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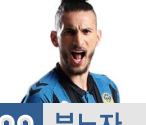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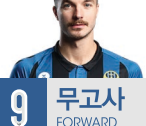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무릎담요, 패딩 출시



INCHEON UNITED 2018 SQUAD



 온안데르센 감독 HEAD COACH	 박성철 코치 COACH	 임종용 코치 COACH	 권찬수 GK코치 GK COACH	 자스민 피지컬코치 PHYSICAL COACH	 이승재 AT ATHLETIC TRAINER	 이동원 AT ATHLETIC TRAINER
 김현진 AT ATHLETIC TRAINER	 1 정산 GOALKEEPER	 21 이진형 GOALKEEPER	 31 이태희 GOALKEEPER	 2 노성민 DEFENDER	 3 김용환 DEFENDER	 5 강지웅 DEFENDER
 6 최종환 DEFENDER	 15 김대중 DEFENDER	 16 이윤표 DEFENDER	 20 부노자 DEFENDER	 26 곽해성 DEFENDER	 32 정동윤 DEFENDER	 33 정원영 DEFENDER
 34 김한빈 DEFENDER	 44 김정호 DEFENDER	 47 김동민 DEFENDER	 4 한석중 MIDFIELDER	 8 이정빈 MIDFIELDER	 10 아길라르 MIDFIELDER	 14 윤상호 MIDFIELDER
 17 고슬기 MIDFIELDER	 18 박종진 MIDFIELDER	 22 김동석 MIDFIELDER	 24 이우혁 MIDFIELDER	 25 김석호 MIDFIELDER	 39 임은수 MIDFIELDER	 40 최범경 MIDFIELDER
 7 남준재 FORWARD	 9 무고사 FORWARD	 11 조주영 FORWARD	 13 김진야 FORWARD	 19 쿠비 MIDFIELDER	 23 김덕중 MIDFIELDER	 27 문선민 FORWARD
 28 이효균 FORWARD	 29 김보섭 FORWARD	 30 김혁중 FORWARD	 36 김대경 FORWARD			

INCHEON UNITED SPLIT SCHEDULE



 인천 0:1 대구 10월 28일(일) 14:00 @인천축구전용구장	 인천 2:1 상주 11월 3일(토) 16:00 @인천축구전용구장	 강원 2:3 인천 11월 10일(토) 14:00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서울 0:1 인천 11월 24일(토) 14:00 @서울월드컵경기장	 인천 전남 12월 1일(토) 14:00 @인천축구전용구장
---	--	--	--	--



MATCH PREVIEW

생존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 냉정히 경기에 임해라

다사다난했던 2018시즌도 어느덧 종료가 임박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생존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전서 무승부 이상을 거두면 자격으로 잔류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상대는 전남드래곤즈다. 인천은 올 시즌 전남과 3차례 맞붙어 2승 1무로 강한 면모를 선보였다. 전남은 38라운드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다음 시즌 K리그 2로의 강등이 확정됐다.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팽배하겠지만 인천에게 방심은 결코 금물이다. 상대도 엄연한 프로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현재 인천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올라 있다. 최근 3연승으로 단숨에 잔류 안정권인 10위로 도약했다. 특히 원정 2연전(강원FC전 3-2 승리, FC서울전 1-0 승리)이라는 고비를 넘고 이뤄낸 결과물이라 더욱 빛난다. 그 결과 인천은 잔류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 전남전에서 인천은 무승부 이상을 거두면 된다. 승리할 경우 승점 42로 상주상무-서울전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10위를 확보하며 잔류하게 된다. 무승부를 거둬도 52득점의 인천은 상주와 서울(이상 40득점)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했기에 사실상 잔류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전남전에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에는 상주-서울전 경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양 팀의 맞대결이 무승부로 끝나거나 서울이 승리한다면 인천은 10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주가 승리한다면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로 향한다.

방심이 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악의 경우가 펼쳐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앞서 거론했듯 전남도 K리그 1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나름대로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분명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남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이유현부터 ‘캡틴’ 김영욱과 ‘유망주’ 한찬희, 이상현 그리고 골잡이 허용준과 최재현까지 뛰어난 기량을 지닌 자원이 여럿 존재하다. 상대는 잃을 게 없다. 강하게 나오면 인천은 당황할 수 있다.

인천은 냉철하게 경기에 임해야 한다. 인천의 지난 상대였던 서울도 무승부만 기록해도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천에게 패하며 혼선에 빠진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3연승을 일궈낸 과정과 마찬가지로 냉철하게 경기에 임해 끝까지 승리를 거두면 된다.

이번 경기 인천은 김진야와 임은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 김진야의 공백은 김동민, 임은수의 공백은 한석종이 각각 매을 전망이다. 문제는 23세물이다. 선발과 후보 각각 1명씩 23세 이하 선수로 꾸려야만 한다. 김보섭, 이정민, 최범경 등이 엔트리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걸음이다. 인천은 그간의 실움과 힘들었던 일을 복기하고 곱씹어야 한다. 오로지 깔끔하게 승리를 거둬 4연승으로 자격으로 잔류를 확정지을 생각을 해야만 한다. 시즌 막판의 상승세가 다가올 2019시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IUFC INTERVIEW

‘축구 천재’ 이정빈,
“강원원정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이정빈



INCHEON
UNITED

이정빈
MIDFIELD

1995년 1월 11일
174cm, 65kg

“준비를 잘하면 분명 기회가 온다고 믿었다”

“팀에 도움 될 수 있는 플레이만 생각할 것”

“언젠간 꼭 태극마크 달고 월드컵 나가고파”

한 때 축구팬들 사이에선 유명한 동영상이었다. 그 동영상에선 한 초등생 축구선수가 환상적인 드리블로 상대팀을 이리저리 휘 저었고, 그 어린 소년에게 주어진 ‘축구천재’라는 칭호와 함께 크나큰 인상을 남겼다. 주목받던 그 선수는 무럭무럭 자라 당당히 프로에 입단했다.

기대와는 달리 그는 프로 무대에서 각광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초조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근차근 준비했고, 주어질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중요한 득점을 성공시켰고 진심어린 인터뷰로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그 주인공은 인천의 이정빈이다.

아직도 꿈만 같은 강원원정...“정말 감사한 하루였다”

현재까지 이정빈은 2시즌 동안 총 20경기를 소화했다. 불운하게도 지난 강원원정(3-2 승)에 앞서 그가 뛴 19경기에서 인천은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징크스를 경험했다. 정말 중요한 순간 터진 데 뷔골로 이정빈은 그간의 설움을 날려버렸다. 그는 “경기 후 많은 분들이 축하 연락을 주셨다. 그때서야 내가 중요한 일을 해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경기 후 방송사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선수들이 울 보냐고 놀리기도 했다”고 웃어 보인 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다. 특별히 경기 전 이상윤 해설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자신 있게 하라’고 격려해주셨다. 이 자리를 통해 이상윤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려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테르센의 히든카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본래 이정빈은 안테르센 체제에서 비로소 보다 많은 출전 기회를 잡고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안테르센 감독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선수는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플레이를 해야 한다”면서 “나 또한 감독님이 요구하는 플레이를 소화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운 좋게 감독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4라운드 강원원정 0-7 대패 이후 이정빈은 좀처럼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허나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 항상 마음속으로 스스로 준비를 잘하면 분명 기회가 온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정

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팀을 상대로 2달 만에 힘겹게 출전 기회를 얻어 히어로로 우뚝 섰다.

어느덧 프로 2년차,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다

어느덧 프로 2년차에 접어든 이정빈, 인천에 입단해 프로무대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물었다. 그는 “솔직히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지금 프로 무대에 있는 시간이 확실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언젠가 내가 K리그에서는 물론 더 높은 무대의 선수가 된다면 지금의 시간들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당당히 말했다.

매 순간마다 이정빈이 되뇌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다. 그는 “프로 무대에서는 항상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결코 느슨한 정신 상태로는 프로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격 포인트 등 개인 목표를 앞세우면 그 경기는 무조건 망친다고 믿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만 생각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부모님 그리고 팬들께 감사...앞으로의 목표는?

지금까지 달려오에 있어 이정빈에게 가장 큰 지원자는 다름 아닌 부모님이다. 이정빈은 “부모님께서 항상 나와 인천을 응원하신다. 언젠가 경기 후 인터뷰하는 기회가 오면 부모님께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됐다”면서 “내가 축구선수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효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인천 팬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내 주위에 있는 타 팀 선수들도 ‘인천 팬들의 열정은 최고’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팬들께는 언제나 감사드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올 시즌 K리그 1 잔류를 이끌고 싶고, 언젠가는 꼭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 무대에 나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글 = 김남웅 UTD기자 (rlaskadnd472@naver.com)

WE WILL ROCK YOU

90分 : 인천을 미치게 만드는 시간



K LEAGUE 1 스플릿 마지막 경기

인천유나이티드 v 전남 드래곤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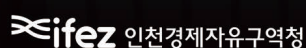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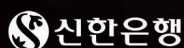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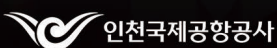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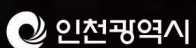
12월 1일 (토)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국철 도원역 / 수인선 송의역)



WWW.INCHEONUTD.COM

문의 | 032 - 880 - 5500





BLUE MARKET

IUFC
BLUE MARKET

E 구역

IUFC
BLUE MARKET

N
구역

S
구역

IUFC
BLUE MARKET

W 구역

블루마켓은 W석 GATE-WG7 옆 장외 매장과
E석 1층 관람석 중앙 장내 매장 두 곳에서
경기 시작 전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운영됩니다.



2019 선수단 패딩 210,000원



무릎 담요 33,000원

온라인 블루마켓 <http://www.incheonutdmarket.com>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18년 12월 1일 / 등록번호 서울중-라686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더스포츠키퍼뮤니케이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16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저작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천



바로 여기!

블루카페는

E석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UFC
BLUE CAFE

500원
할 인 쿠폰

*본 할인쿠폰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블루카페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LUE CAFE

을 시즌도 인천유나이티드는 E석 팬 라운지에서 블루카페를 운영합니다. 블루카페에는 더로스터 리무즈가 입점하여 팬 여러분들께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합니다. 시즌권 제시시 'SIZE UP'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본 매거진 마지막장에 블루카페 500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 인천 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